

#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대전환 반드시 이뤄낼 것

Q.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경쟁하신 이남호 후보와 그 지지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려는 도민의 명령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좋은 정책까지 적극 수용하여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선택하신 도민들의 뜻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전북교육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Q. 이번 선거에서 56.6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 6.3 지방선거에서 56.63%라는 득표율을 보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내 주신 것은 위기의 전북교육을 반드시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달라는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과 가장 높은 지지율을 마음속에 품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Q.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전북교육의 가장 큰 과제와 도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과제는 무너지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민들의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교는 인권친화적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당선인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이번 당선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더 공공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도민 여러분의 뜻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발표하고, 입시 경쟁 해소·공교육 정상화·고교 서열화 해소·학교 민주주의 실현·지속가능한 미래교육·교육복지 확대 등 핵심 과제를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후보로 함께 뜻을 모은 분들의 노력과 지지,



현장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로 입시와 서열 중심의 낡은 교육을 넘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중심이 되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북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배우고, 공교육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Q.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길 교육 현안은 무엇입니까. 또 우선 추진할 핵심 공약 3가지를 꼽는다면?

- 가장 먼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중심·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추진할 핵심 과제는 첫째,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를 통한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둘째, 맞춤형 진학·진로교육 체계 구축으로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 설립과 'AI 진학·진로 플랫폼'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지역화를 기반으로 농촌·유학 확대와 지역 연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Q.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현재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는 이유와 회복 방안

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전북교육은 교육 주체 간 신뢰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학생 민원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비분장적 행정업무로 교육자원의 업무자원센터로 이관하고, '사업 일몰제'와 '업무 총량제'를 도입해 교무실이 수업 연구 중심 공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해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Q. 기초학력 문제 해결과 미래역량 교육을 어떻게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까?

-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를 통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연계한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양성·배치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및 정부와 연계한 종합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동시에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 300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초학력과 미래역량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Q.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혁신 방향은 무엇입니까?

-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변화 속에서 개별 맞춤형, 이른바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확실적인 수도권 대학 진학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꿈을 존중하는 진로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당선은 전북교육 바꾸려는 명령 전북교육 발전 위해 힘 모아야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잠재력 꽃피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

기초학력 책임 보장 등 우선 추진

민원 대응팀 운영 통해 교사 보호

청렴 시스템 구축, 행정 투명성 강화

새만금 글로벌 교육발전 특구로 지역소멸 위기 돌파

초·중·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통해 진학·취업·창업을 연결하겠습니다.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을 설립해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과 자기주도적 재능 계발을 통합 지원하고, 'AI 진학·진로 플랫폼'을 통해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독서 이력, 심리 데이터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와 대입 전형까지 지원하겠습니다.

Q. 작은 학교와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교육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지역화를 통해 지역 산업과 자원이 연계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농촌유학을 현재 3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하고, 교육거점 플랫폼을 구축해 유학센터형·휴스페이스형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일자리·장주 여건이 선순환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작은 학교와 농어촌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예산·계약 분야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청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떠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도민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Q. 경쟁 후보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수용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함께 경쟁하신 이남호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좋은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려는 도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Q. 임기 4년 뒤 전북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구조가 회복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보장되고, 맞춤형 진로교육이 정착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된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Q. 새만금을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로봇 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등 첨단 산업이 들어오고, 이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라지고 마을은 비어 가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을 '글로벌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해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취업 연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전북에서 배우고, 지역 산업과 연결된 미래를 설계하며, 졸업 후에도 이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Q. 세 번의 도전 끝에 전북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선거 기간 유세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의 "전북교육을 대전환시키자"라는 간절한 열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교육철학은 한마디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교육은 경쟁만 앞세워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35년간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흔들리지 않고 교육 이념을 꾸준히 해 온 길을 신뢰해 주신 덕분이며, 위기에 처한 전북교육을 살려내라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큰 힘으로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을 바꿀 책임자로 저를 선택해 주신 뜻을 절대 잊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만호 기자 · 오상근 기자

## 천호성 당선인이 걸어온 길 세 번의 도전 끝에 전북교육 수장 되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천호성 당선인이 마침내 도민의 선택을 받으며 교육감의 꿈을 이뤘다.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거둔 값진 승리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육전문기자이자 교육개혁 운동가였던 그는 이번 선거에서 56.63%(50만6,187표)를 획득하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수장으로 우뚝 섰다.

고창에서 태어난 천호성 당선인은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일본 나고야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교육 연구의 전문성을 쌓았다.

그의 교육 인생은 연구실보다 교실에서 더욱 빛났다.

이리고등학교와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해리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과 함께 호흡했고, 이후 전주교육대학교 교사로 재직

하면서 미래 교사 양성에 힘써왔다. 천 당선인은 무엇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20년 동안 수업연구 교수로 활동했다. 또한 500여 차례가 넘는 학교 방문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

**이리고 등서 교사로 근무, 학생들과 함께 호흡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래 교사 양성 힘써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 교육격차 해소 주장**

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교육 현장의 문제와 해법을 연구해 왔다.

그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북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교육자들과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운동에 앞장섰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

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왔다. 또한 민주 진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위원회가 선출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활동하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주장해 왔다.

**이런 선거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을 "현장교육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교육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천 당선인의 정치적·사회적 행보 역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기본소득 국민운

동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교육복지 확대와 청소년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였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번 당선은 단순한 선거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두 차례의 낙선에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 현장을 지키며 오뚜기처럼 꾸준히 도전해 온 그의 끈기와 신념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변에서는 그를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교육자", "현장을 발로 뛰는 교육전문가",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교육감"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강조해 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은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이 교사와 교수, 교육운동가, 연구자로 걸어온 그의 삶이 앞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 당선인 프로필

- 1967년 고창 출생
- 전라고등학교 졸업(14회)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84학번)
- 나고야대학 교육발달과학 연구학 박사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이리고, 전주여성, 해리고 교사(전)
-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
- 민주진보전북교육감후보(전)
- (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 선출위원회에서 선출)
- 문재인 대통령후보 교육특보(전)
-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대표(전)
- 박근혜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대표(전)